

사회

대로변 여고생 납치 성폭행... 안전지대 없다

경찰 방법 비상령 속... CCTV 용의자 공개수배 해남선 20대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생 성추행

나주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 경찰이 방법 비상령을 선포하고 불심검문 등 순찰을 강화했지만 이를 비롯하듯 도심과 농촌에서 또 다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경찰은 여고생 성폭행 3일 만에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지만 허술한 치안력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로변서 납치=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여고생 A(16)양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괴한은 귀가중이던

A양을 뒤쫓아가다가 대로변에서 입을 막아 납치한 뒤, 약 30여m 떨어진 원룸 공사장 2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양이 납치된 장소는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버스정류장 부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경찰은 9일 초등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아동 성폭력 전과자 이모(28)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께 해남군 해남읍 한 농로에서 초등학교 5학년 B(12)양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3세 미미리지르던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양이 납치된 장소는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버스정류장 부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을 수 없었나? =여고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발생 장소는 큰길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이었다. 특히 관련 지구대는 사건 발생 직전인 지

난 6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도보순찰을 했다.

또 당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모두 7차례의 도보순찰을 했다. 경찰은 방법 비상령 선포 이후 강력범죄와 성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우범지대를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이 우범지대 위주로 순찰을 하다 보니 이번 사건과 같은 대로변 등에는 순찰을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들도 보다 현실적인 순찰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구대는 18개 성폭력 우범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성폭행 사건 장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3일 만에 공개수배=경찰은 여

고생 성폭행범 검거를 위해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지난 7일 밤 8~11시까지 경찰 1110명을 투입해 광주지역 114개소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CCTV 500여대를 분석해 입수한 용의자 영상을 토대로 사건 발생 3일만인 9일 오후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수사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CCTV 영상 속 용의자는 키 175cm에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검정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다.

하지만 CCTV 속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논란 장남'인 CCTV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CCTV 사진



고 있다. 실제 광주 지역 방범용 CCTV 가운데 대다수가 밤에는 물론 낮에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CCTV와 함께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란 PC방 업주 8명 입건

광주경찰, 행정처분 못 해 단속 한계

경찰이 성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 거점인 성인 PC방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성인 PC방은 구청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만 받을 뿐 영입이 가능(광주일보 9월 7일자 6면)하기 때문이다. 또 아동 음란물 등을 시청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광주지역 8곳의 성인 PC방 단속에 나서 김모(41)씨 등 업주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이들은 1시간당 5000~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란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거나 미리 내려받아 둔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미 경찰이 단속한 광주시 북구 모성인PC방은 지난 6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성인PC방에서는 전화방까지 겸업하고 있었으며, 단속된 뒤 컴퓨터 내 아동 음란물만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8일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작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업체 직원과 119구조대원들이 긴급출동해 레일에 끼인 리프트카 안전지대를 해제하고 있다.

공중에 매달려 '아찔한 110분'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또 멈춰... 승객 19명 공포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카의 좌석에 장착된 안전지대가 레일에 걸리면서 탑승객들이 2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다. 설치된 지 34년이 지난 이 노후 리프트카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9일 광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52분께 광주시 동

구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카 1대가 정상 부근에서 멈춰서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승객은 모두 19명(남 7명, 여 12명)으로 어른 13명, 어린이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 가족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리프트카 정비 관계자들은 고장 난 리프트카를 해제해 사고 발생 1시

간50여분만에 탑승객을 모두 구조했다. 사고가 난 리프트카는 지난 2010년 3월에도 쇠줄이 풀리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009년 2월과 2008년 8월에 도승객이 추락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리프트카를 운영하는 무등파크호텔 측은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노후 장치물'임에도 정기점검만 한 채 운영을 계속해왔다. 무등파크호텔은 노후 시설에 따른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고 후 리프트카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령 기계' 담보 400억 대출 건설사대표 징역 10년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최근 가짜로 건설기계 등록증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에서 400억원대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종업건설 대표 송모(43)씨와 부사장 조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불법대출 범행을 공모한 이사장모(37)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김모(42)씨 등 나머지 가담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5650만원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이모(41)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에 벌금 7280만원, 추징금 728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뇌물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동구 모신협 전 지점장 황모(4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및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실제 없는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서 421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금은방 강도 800만원어치 털어

지난 8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박모(53)씨의 금은방에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괴한은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뒤 5분 뒤 달아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별실에서 잠을 자다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괴한이 물건을 훔치다가 달아났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때와 장소 안 가리는 '바바리맨'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만 최근 일주일새 일명 '바바리맨'(노출증) 등 20~30대 젊은이 3명이 잇따라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경찰서행.

○9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40분께 한 아파트 12층과 옥상을 잇는 계단에서 귀가중인 이 아파트 27층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여성을 조소중)이며 지난 9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노래방 건물 옆 골목길에서 같은 행위를 한 신모(20)씨와 같은 날 오후 우산동 대로변에서 못된 행동을 한 조모(33)씨를 각각 공판유예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

○경찰은 "바바리맨을 목격할 경우 침착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동이다. 이 유근피동에 실구해,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의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9)204-종-4738호